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 적은 자녀수 명품 소비 고공행진

최근 겨울을 맞아 1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아동 명품 패딩이 불티나게 팔렸다. 유통업체에 따르면 올해 몽클레르(몽클레어), 버버리 키즈 등 아동 명품 매출이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아동용 패딩은 몽클레르 키즈에서 120만~180만원대, 버버리 키즈는 90만~140만원대에 판매한다.

중고거래 시장에서도 아동 명품 거래가 활발하다. 당근마켓에 '키즈 명품', '몽클레어 키즈', '버버리 키즈' 등을 검색하니 여러 상품이 거래되고 있었다. 키와 몸무게의 변화가 큰 성장기 아동들은 금방 옷이 작아지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입힐 명품을 사고파는게 활성화 됐다.

방송인 이지혜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고거래로 자녀 명품을 구매해 봤다고 밝히며 "어느 날 놀이터 가보니 애들이 다 명품 패딩을 입고 있더라. 우리 딸을 보니 너무 초라해 보였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아동 명품 소비가 늘어나는 배경에 '적은 자녀 수'를 꼽는다. 많은 가정이 자녀 한명을 두고 있다 보니 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명품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

이는 인구 억제정책을 펼친 이후 나타났던 중국의 일명 '소황제(小皇帝) 세대'와 비슷하다. 중국은 1980년대 '1가구 1자녀' 정책을 펼쳤는데, 이때 형제·자매 없이 태어난 외동들은 부모와 친척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동 명품 소비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소황제 세대가 '과잉보호', '경제관념 부족' 등으로 비판받았던 것과 유사한 현상이 한국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명품을 입히는 것이 과시욕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몽클레르 겨울 외투가 아이들의 교복이 됐다-한국의 키즈 명품 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유아 명품 시장 성장의 배경으로 과시욕, 모방심리 등을 꼽으며 사치품 유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으로 명품을 소비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경제적 관념을 심어주는 금융 교육 병행이 시급해 보인다.

#SnackNews  
 #아동명품소비고공행진  
 #송민섭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죽음의 제주바다

꼬리에 밧줄을 달고 해염치는 돌고래, 목에 그물이 걸린 거북이. 폐어구가 해양생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 보전연구센터는 제주 앞바다에서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남방큰돌고래를 발견했다. 폐어구로 인해 죽음에 이른 바다거북도 여럿 발견됐다. 서귀포해경역시 목에 그물이 걸린 붉은바다거북을 구조했지만, 이미 죽은 상태였고 밧줄 등에 걸린 채 떠밀려 온 매부리바다거북도 이른날 폐사했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128마리의 바다거북이 죽은 채 발견됐으며 이중 31마리(25%)에게서 폐어구가 발견됐다.



다시 찾아온 '립스틱효과'

소비침체로 명품 상품 매출이 감소한 반면 초호화 화장품 시장은 성장 추세다. 경기불황마다 나타나는 '립스틱 효과'가 고개를 든 것. 립스틱 효과는 소비 경기가 나빠도 립스틱과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본 전환용 미용품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 립스틱 매출이 오르는 기현상에서 나온 단어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치심을 충족할 수단을 찾는다는 심리를 나타낸 경제용어다. 실제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세의 올해 시계·보석, 와인·주류 부문 등은 대부분 역성장했지만 화장품·향수 부문 매출은 올 세 분기 연속 성장세다.



청소년은 SNS를 못하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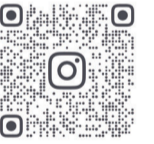
호주와 노르웨이 정부가 아동들의 무분별한 SNS 사용을 막기 위해 각각 16세와 15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제한되는 SNS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엑스, 유튜브 등이다. 법은 부모에게 SNS 사용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호주 정부는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새로운 법을 논의한 뒤 이달 말 의회에 상정하고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지난해 기준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조정했으며 조만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직 쓸 수 없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선언하며 상품권 이용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결론은 '아직까지는' 이마트에서 신세계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쪽이 아직 정식분리를 진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계열분리를 위해선 이명희 회장의 보유 지분이 정리돼야 하는데, 당국의 승인절차 등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다. 계열분리가 완료되면 신세계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상표권과 브랜드를 공유할 수 없어서다. 다만 이마트가 '신세계' 사용료를 내면 가능하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 복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